

# 통일선보

무소속대변지 제40호 [루계 제2718호]

주체 111  
(2022)년 10월  
1일  
토요일  
음력 9월 6일

철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가 9월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가 9월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영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영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영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 나라의 농업도에 펼쳐진 희한한 농기계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황해남도에서 배려하여주신 농기계전달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황해남도에서 배려하여주신 농기계전달모임이 9월 25일 해주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광장과 주변도로는 우리 식의 현대적인 농기계들로 꽉 들어차 황해남도가 생겨 처음보는 장관을 펼쳤다.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전달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인민생활문제를 푸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신심을 가지고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집행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농업부문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군수공업부문에서 우리 식의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생산하여 기본복합지대인 황해남도에 우선적으로 보내주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해주시의 광장일대에 펼쳐진 농기계바다는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황해남도를 비롯한 온 나라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일군들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며 자존, 자립, 전면적발전의 기치높이 새로운 변혁적실체들을 끊임 없이 이루어내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국가의 필승의 기상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황해남도안의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이 5개년계획수행의 사활이 달려있는 올해 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알곡증산성파로 당중앙을 보위하며 모든 농촌마을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전국의 앞장에 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어 토론들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황해남도의 농사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온 나라가 최악의 보건의 위기를 겪는 시기에도 사랑의 불사약을 거듭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진정은 오늘날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아버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결정체인 새혁의 농물높은 농기계들을 받아안은 걱정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우리 농민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키워주시며 사회주의농촌진흥의 밝은 미래를 당겨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도안의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려왔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성다해 받들어 싣로써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농업 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열의에 넘쳐 구호들을 힘차게 외쳤다. 모임이 끝난 후 참가자들과 해주시민들은 은정어린 농기계들을 감격속에 돌아보았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이 드넓은 전야를 뒤덮고 기계로 흉결해 농사짓는 사회주의농촌의 새 풍경을 그려보며 황남인민들은 환희와 격정에 휩싸여 노래와 춤판을 펼쳤다.

본사기자

### 황금벌에 넘치는 격정의 파도, 새 농기계들의 등음소리



# 반만년민족사를 찾아주신 위대한 은인

사람들 누구나 맑고 푸른 하늘을 떠고 대박산기슭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단군릉을 바라볼 때면 우리 민족의 반만년역사와 문화를 빛내주시기 위해 커다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름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둘이켜보면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숭상하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 한갓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간주되었던 단군이 실재한 인물로, 우리 민족의 시조로 빛을 뿌리게 된것은 절세위인들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우리 민족의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찾아주시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단군의 출생지와 고조선의 수도문제를 주제적립장에서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확증하도록 하시고 역사학계의 울타리를 벗어나 전국적인, 전 인민적인 범위에서 단군과 관련한 유적유물발굴사업을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셨다. 특히 주제82(1993)년 1월에는 강동군에 있는 단군릉도 발굴해보도록 하시었다.

단군유골의 발견에 큰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그 실체를 정확히 밝혀주실 있도록 최첨단기술수단과 기술력량을 아낌없이 보강해주셨을 뿐 아니라 단군연구사업에서 나서서 크고작은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단군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발굴당시(1993년) 5 011(±267)년전에 태어난 실재한 인물이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므로 조선민족은 자기의 원시조를 찾게 되었다.

1993년 10월 《로동신문》에 실린 《단군릉보고》에는 이렇게 써여있다. 《중전에 신화적, 전설적인 문로 간주되어온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실지로 반만년의 유구한 령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이였다는것이 명백해졌다. 단군이 고조신을 창건하고 도읍한 평양이 상수려한 곳으로서 검은모루유적의 주인공과 (력조사람) (고인), (만달사람) (신인), 조선옛류형사람으로 이어지는 인류발상지의 하나이며 조선민족의 발상지이고 첫 국가의 발생지였다는 사실이 힘있게 증명되었으며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임을 떼뻗어 자랑할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단군릉의 발굴과 단군의 유골발견은 우리 고고학의 승리이며 나아가서 조선민족의 큰 승리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군이 실재한 인물로 확증된 조건에서 평양일대에 원시조의 무덤인 단군릉을 잘 꾸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굴고령의 품으로 몸소 강동땅을 찾으시어 앞이 훤히 트인 대박산기슭 야산마루우의 명당자리에 개건할 단군릉터를 정하여주시었다.

유구한 민족사의 상징인 단군릉을 잘 꾸리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설계도면만도 여러 차례나 보아주시고 력사주의적원칙에서 부족집단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에는 최종설계도안을 보시고 《1994년 7월 6일 김일성》이라고 친필로 비준하여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단군이 실재한 인물로 확증된 조건에서 평양일대에 원시조의 무덤인 단군릉을 잘 꾸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굴고령의 품으로 몸소 강동땅을 찾으시어 앞이 훤히 트인 대박산기슭 야산마루우의 명당자리에 개건할 단군릉터를 정하여주시었다.

##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어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다. 하지만 그 반만년의 역사를 증명할 길이 없어 우리 민족의 첫 건국사는 한갓 전설로 전해왔다. 이 전설을 정설로, 실재한 사실로 조선민족에게 안겨주시신분이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이다.

역사책들도 단군의 건국에 대하여 전하고있다. 하지만 우리가 원시조들은 단군을 하늘이 낸 임금, 단군천왕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대성인으로 칭송했고 후기신라의 유명한 화가 솔거는 민족의 원시조 단군에게서 붓을 받는 꿈을 꾸고 단군의 화상 1 000여상을 그려 후세에 전해지게 했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해 오래동안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던 단군릉에 대한 발굴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1993년 2월 단군의 유골과 유물이 발굴되게 되었다.

1993년 10월 《로동신문》에 실린 《단군릉보고》에는 이렇게 써여있다. 《중전에 신화적, 전설적인 문로 간주되어온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실지로 반만년의 유구한 령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이였다는것이 명백해졌다. 단군이 고조신을 창건하고 도읍한 평양이 상수려한 곳으로서 검은모루유적의 주인공과 (력조사람) (고인), (만달사람) (신인), 조선옛류형사람으로 이어지는 인류발상지의 하나이며 조선민족의 발상지이고 첫 국가의 발생지였다는 사실이 힘있게 증명되었으며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임을 떼뻗어 자랑할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단군릉의 발굴과 단군의 유골발견은 우리 고고학의 승리이며 나아가서 조선민족의 큰 승리로 된다.》

## 웅장하게 일떠세워주신 시조릉

1994년 10월 평양시 강동군에 단군릉이 새로 일떠섰다. 단군릉은 1 994개의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9개 단의 계단돌무덤으로 축조되었다.

단군릉의 총 부지면적은 45정묘이다. 단군릉은 크게 단군릉개건기념비구역과 석인상구역 및 중심구역으로 나누었다. 우리 민족의 건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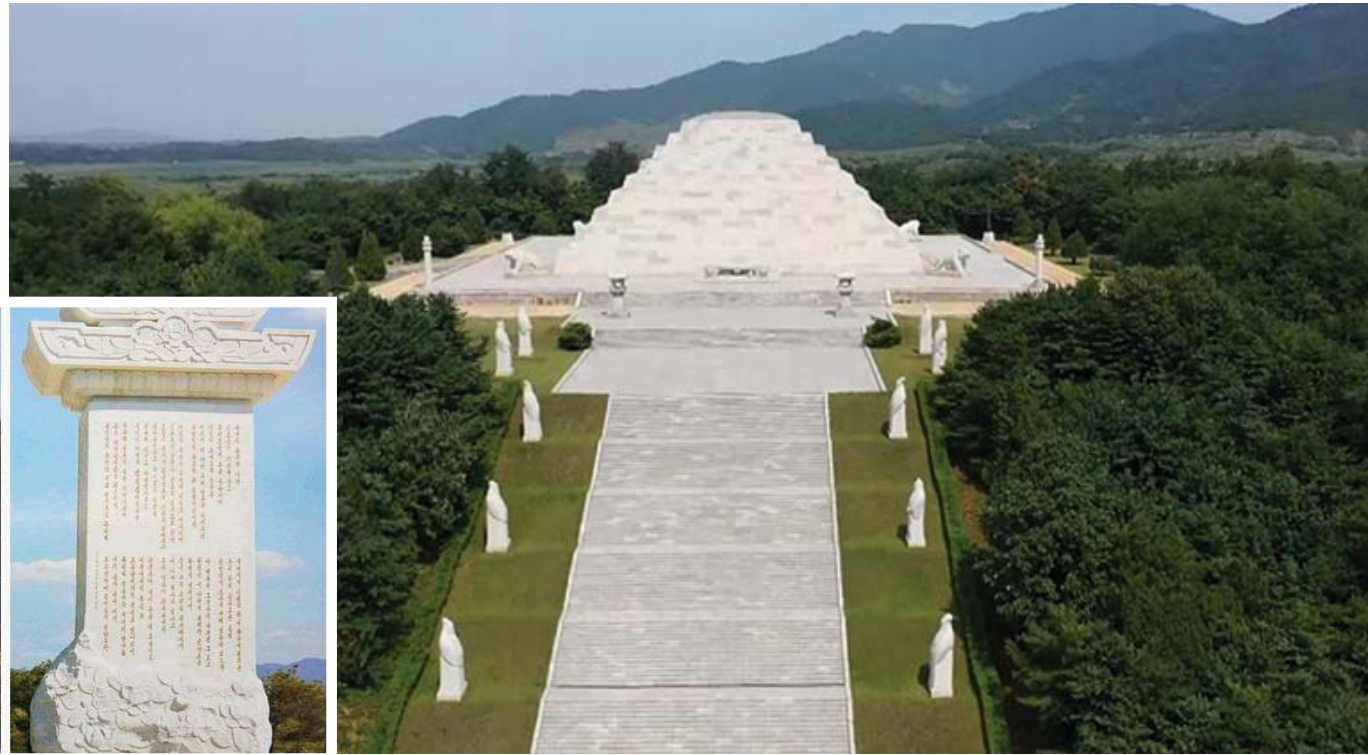
조 단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단군릉은 단군조선시기의 발전된 문화와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보여주는 력사적내용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민족의 전통적인 무덤양식에 연원을 두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족성이 매우 짙은 문화적재보이다. 또한 단군릉은 건축공학적으로 매우 웅장하며 조선사람의 미감에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로 단군릉복구위원회를 무어주시였으며 통건설에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고 많은 자재와 설비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주시었다. 또한 단군릉이 후세에 길이 전할 기념비적건물이 되게 시대성과 전통적민족풍습의 관례를 잘 살려 건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독특하고 웅장한 단군릉이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건설되게 되었다.

주제83(1994)년 10월 어느날 유구한 민족사의 상징인 단군릉이 새로 일떠세워졌다. 단군릉을 찾아주시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수령님께서서는 단군릉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몸소 봉자리까지 찾아주시었다고, 수령님께서 찾아주시신 단군릉터는 명당자리라고, 수령님께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고 단군릉을 훌륭하게 개건하도록 하시므로써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령사와 슬기를 대를 이어가며 길이 전할수 있게 되었다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대경사이며 력사적인 사변이라고 할수 있다고 절절한 어조로 교시하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민족사적업적을 길이 전해주는 단군릉에서는 해마다 개건절행사가 진행되고있다. 참으로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에 떠받들려 일떠선 단군릉은 조선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중시하는 기념비로, 부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크나큰 민족적공기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귀중한 문화적재보로 오늘도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다.

본기자 주일봉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은 지금으로부터 반만년전에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그후 3 000년동안 존속하면서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발전하였다.

오랜 력사적인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백성들에게 리익을 주기 위해 인간살이의 360여가지 일을 주관하면서 정치와 교화를 베풀었다고 써여져있으며 《단군고기》에는 《단군왕검은 삼일신고를 친하여 포고하고 366일의 신정으로 나라 백성들을 순박하도록 훈계하니 그 덕은 하늘명과 같았고 그 밝은 해와 달같았더라.》고 써여있다. 그리고 《제왕운기》, 《세종실록》을 비롯한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시공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국제비행장으로 들어가는 순안다리입구에 대성산혁명렬사릉터형 평양국제비행장이라고 쓴 민족적양식의 문구를 세우고 항공역사의 처마 밑에 백호무늬같은것을 같은 색으로 약간 두드러지게 장식하는것이 좋겠다고, 평양항공역은 평양의 관문, 우리 나라의 얼굴이나 같으며 나라의 경제력의 징표라고 말할수 있다고, 그러므로 항공역사를 건축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몇해전 10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어 지방특산물생산에 큰 힘을 넣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삼가운데서 개성인삼의 약효가 제일 높다는데 대해 말씀하시면서 개성인삼재배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세세히 가르쳐주시었다. 또한 개성인삼뿐 아니라 안변감, 성천약밤, 회령백살구를 비롯한 지방특산물들을 보호하고 그 생산을 늘이도록 할데 대하여도 이르시었다.

사회주의부분법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언제나 인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법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는데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원, 유휴지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미화

려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법률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바다를 황금해로 전변시켜 인민들에게 맞춤형 신선한 물고기가 더 많이 차례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구절구절에 흘러넘치는 수산법이다.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구절구절에 흘러넘치는 수산법이다.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구절구절에 흘러넘치는 수산법이다.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구절구절에 흘러넘치는 수산법이다.

법적이고 문명한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꾸리려는 조선로동당의 농촌혁명강령과 원림특화정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특화법이 채택되었다.

본기자 주일봉

# 날로 꽃피어나는 민족문화와 전통

공화국에서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이 면면히 계승되고 개화발전하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령사와 찬란한 문화, 민족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장려하도록 하시신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살려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전 10월에도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령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에서 민족유산보호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해주시어

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등이 채택되게 되었다. 이 법률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아낌없고 문명한 문화생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해주며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보호하고 국도의 면모를 개선시키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어려여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들어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도 인민들에게 보다 유익한 생활을 안겨주시

국가활동전반을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일관시키고 생산과 건설을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첫차리에 놓고 진행해나가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후대관을 교육강령집행 조건과 환경을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육강령집행 조건을 보다 원만히 보장해내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공화국 교육강령집행법, 편의봉사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화 질서를 바로세워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명시한 조

법적이고 문명한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꾸리려는 조선로동당의 농촌혁명강령과 원림특화정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특화법이 채택되었다.

이 법률에도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쳐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민족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변모시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과 문화휴식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

본기자 김혜성

와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한 문제들을 밝혀주시면서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 국가적, 전 인민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가는데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신지가 하는것은 개건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를 주체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세워주시신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평양항공역사를 건설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나라의 좋은것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민족성이 살아나게 마음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러자면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여러가지 장식을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계속 발전시키는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계신다.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시대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민족애는 조선바지저고리차림을 비롯한 민족우담간장을 장려하고 새집들이인 가정을 축하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성냥을 비롯한 생활용품들을 들고가도록 하시는데 비견되고 조선민족의 상징과도 같은 《아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상표 등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보여주는 상표를 단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공기와 자부심을 안겨줄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도 담겨져있다. 또한 지방특산물생산을 늘이도록 하시신 령도의 손길에도 비견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공화국의 모든 법률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법들이 채택되고있다.

## 사랑받아 지어주신 이름들

우리 나라에는 무지개와 관련한 전설이 수없이 전해 내려오고있다. 무지개가 비친 곳에는 금은 보화가 있다는 전설도 있고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무지개를 타고내리는 전설도 있다. 이처럼 무지개와 관련한 전설이 많은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드려온 무지개가 그리움이 아름답고 신비하기때문이다.

그리고 배의 이름도 《무지개》호로 명명해주시었다. 주제104(2015)년 9월의 어느날 저녁이었다. 사람들이 단란한 가정적 분위기에 휩싸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던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기 위해 대동강에 나오시었다. 구슬이 흘러가는듯한 대동강 한복판에 밝고 아름다운 색들로 불장식을 하고 떠있는 종합봉사선은 민낯치에서 보아도 황홀하기가 실로 이를때였다.



《무지개》호를 둘러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에 《무지개》호를 띄워놓으니 더욱 환해졌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이날 민족로리식당,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동식식사실, 연회장, 벨트부페트 식당, 야외감관식당, 최전진방식당, 삼점 등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그즈넉하게 갖춘 4층으로 된 《무지개》호

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에 《무지개》호를 띄워놓으니 더욱 환해졌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이날 민족로리식당,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동식식사실, 연회장, 벨트부페트 식당, 야외감관식당, 최전진방식당, 삼점 등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그즈넉하게 갖춘 4층으로 된 《무지개》호

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에 《무지개》호를 띄워놓으니 더욱 환해졌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이날 민족로리식당,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동식식사실, 연회장, 벨트부페트 식당, 야외감관식당, 최전진방식당, 삼점 등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그즈넉하게 갖춘 4층으로 된 《무지개》호

본기자 리경월

몇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식당을 비롯한 여러가지 봉사시설들과 문화휴생시설들을 갖춘 종합봉사선을 잘 무어 유류교와 대동강다리사이에 띄워놓으니 우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문화휴식장소를 마련해주시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후 여러 차례에 걸쳐 종합봉사선의 설계도 지도해주시고 건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었다. 그리고 배의 이름도 《무지개》호로 명명해주시었다. 주제104(2015)년 9월의 어느날 저녁이었다. 사람들이 단란한 가정적 분위기에 휩싸여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있던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시기 위해 대동강에 나오시었다. 구슬이 흘러가는듯한 대동강 한복판에 밝고 아름다운 색들로 불장식을 하고 떠있는 종합봉사선은 민낯치에서 보아도 황홀하기가 실로 이를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둘러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에 《무지개》호를 띄워놓으니 더욱 환해졌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이날 민족로리식당,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동식식사실, 연회장, 벨트부페트 식당, 야외감관식당, 최전진방식당, 삼점 등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그즈넉하게 갖춘 4층으로 된 《무지개》호

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에 《무지개》호를 띄워놓으니 더욱 환해졌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이날 민족로리식당,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동식식사실, 연회장, 벨트부페트 식당, 야외감관식당, 최전진방식당, 삼점 등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그즈넉하게 갖춘 4층으로 된 《무지개》호

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에 《무지개》호를 띄워놓으니 더욱 환해졌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이날 민족로리식당,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동식식사실, 연회장, 벨트부페트 식당, 야외감관식당, 최전진방식당, 삼점 등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그즈넉하게 갖춘 4층으로 된 《무지개》호

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에 《무지개》호를 띄워놓으니 더욱 환해졌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었다. 이날 민족로리식당, 커피봉사실, 청량음료실, 동식식사실, 연회장, 벨트부페트 식당, 야외감관식당, 최전진방식당, 삼점 등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그즈넉하게 갖춘 4층으로 된 《무지개》호

본기자 리경월

본기자 한일혁

# 황혼기의 청춘들



무릇 황혼기라고 하면 인간의 한생에서 한창때가 지나가고 정신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가는 시기를 두고 말한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마음은 늙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60정춘, 90환갑을 노래하는 공화국의 년로자들이다.

며칠전 국제로인의 날을 맞아 평양시의 어느 한 공원에서 동대원구역과 평천구역 년로자들사이의 배구 경기가 진행되었다.

응원자들은 물론 길가던 사람들까지 모여와 어깨를 땀고 경기를 관람하였다. 로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젊은이들 못지 않게 처령기와 공박기, 연락과 타격,

막기 등 민첩한 동작과 세련된 기술을 보여주는 선수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중단되었다. 동대원구역선수들이 뺨판 타격으로 선수들을 부진시켰다고 제기했기였다.

얼마후 《부정선수》의 생년월일이 밝혀져있는 시민증을 본 상대편 선수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68살?! 그게 사실이요? 타격습서로 보아 50대중반쯤으로 알았는데...》

커지는 눈들, 탄성과 웃음소리...

환한 웃음속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로인이 《세월이 하도 좋으니 경기에서 《부정선수》들이 생기는구만. 저걸 좀 보라. 우리 로인들이 얼마나 젊어보이나.》라고 하는 말에 누구나 머리를 끄덕이였다.

젊어지는 로인들, 얼마나 좋은가.

당과 국가의 고마운 혜택속에 혁명선배로, 사회와 가정의 옷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젊음에 넘쳐 생활하는 년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비친 배구경기였다.

돌볼 사람이 없는 년로자들도 훌륭히 꾸러진 양로원에서 부러움없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있다.

얼마전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평양양로원을 찾은 우리에게 한철수로인(75살)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예로부터 금이야 옥이야 라는 말은 어린이들에게 해주지 않았소. 그런 말을 오 늘 우리 보양생들이 듣고있다. 끼니때마다 우리를 위해 해준 요리로 푸짐한 식탁을 마련해주고 갖가지 생활용품들까지 보양해주어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고있

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었다. 인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가장 우월한 시책들이 실시되는 사회주의제도에서 무병무탈하여 복된 삶을 누려야 할머니는 받아안는 영광이 꿈만 같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지구를 휩쓰는 악성전염병이 많은 나라들에서 년로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사정없이 앗아가고있을 때 오직 공화국에서만 백살장수자들이 늘어나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졌으니 이것은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낳은 력사에 류례없는 사랑의 전설이다.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속에 황혼기에도 청춘을 사는 년로자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다.

《자식들은 양로원에 부모를 맡겨놓고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를 묻는 전화도 없다. 병중세가 심해져서 연락하면 죽기를 바라는 말투이다.》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과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로인들을 돌봐준다는 시실들도 이들과는 정반대로 학대와 폭력의 잔무장, 부정부패의 서식장으로 되고있는 형편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

남조선에서 로인들에 대한 학대와 범죄행위가 꼬리를 물고 련속 일어나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자식이 돈을 노리고 늙은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 자식이 병에 걸린 늙은 어머니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 길가던 로인에게 달려들어 귀중품을 강탈한 사건, 80살 난 할머니까지 성폭행한 사건 등 로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살인, 강간, 강도행위가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는 곳이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빌어먹고있다. 지하, 움막, 비닐막막집 등에서 살고있는 로인들도 10만여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자식들의 버림을 받고 양로원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고있는 로인들의 비참한 처지를 두고 남조선의 어느한 양로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생활, 자식들의 버림을 받은데로부터 오는 외로움과 피로움, 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로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사가 계속 벌어지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로인자살상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되고있고 있다.

사회적으로 옹당 보호를 받아야 할 로인들이 모진 학대속에 나중에는 목숨까지 빼앗기고있는것이 인간의 정이 강그리 사라진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의 실상이다.

## 버림받은 로인들

《자식들은 양로원에 부모를 맡겨놓고는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를 묻는 전화도 없다. 병중세가 심해져서 연락하면 죽기를 바라는 말투이다.》

돌볼 사람이 없는 로인들과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로인들을 돌봐준다는 시실들도 이들과는 정반대로 학대와 폭력의 잔무장, 부정부패의 서식장으로 되고있는 형편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

오죽하면 남조선의 언론들이 《로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큰 재앙이다.》고 하면서 남조선은 세계적인 로인자살상국, 남조선의 부모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불행하다고 개탄하고있었는가.

남조선로인들의 비참한 처지는 극도의 인간중요사상과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반인민적 사회제도가 빚어낸 사회악이다.

본사기자 전명진



## 수령 조국의 품에 안겨 혁명가국의 주인공으로

나는 누구보다 노래를 사랑한다. 철부지소년시절부터 음악과 인연을 맺고 수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노래 《한없이 고마운 조국의 품》을 나는 남달리 사랑하며 즐겨 부른다.

...  
어제날의 이국살이 설움도 가져주고  
꿈에서만 그려보던 소원도 풀어주네  
아 조국이여 그대는 수령님 품 희망을 꽃피우는 어머니여  
사랑의 품이여  
...

세상에 태어나 이처럼 황홀한 공연을 처음으로 본 16살 애인 나의 가슴속에는 성악가로서 청춘의 푸른 꿈을 꽃피워갈 희망이 보름달처럼 가득 부풀어올랐다.

하지만 거처는 자본주의일 분방에서는 그 누구도 나의 소원을 알아주고 풀어주지 못하였다.

오직 인민을 하늘처럼 떠 만드는 사회주의조국에서만 그 소원을 이룰수 있음을 깨달은 나는 1973년 10월 공결에도 나는 공화국의 품에 안기였다.

낱아키운 부모는 바다너머 일본땅에 있었지만 나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어머니조국의 사랑속에 부러움 없이 자랐다.

무료교육의 혜택속에 온갖 조건을 보장받으며 평양음악 무용대학(당시)을 졸업한 나는 그토록 소원하던 가극배우가 되였다. 영광스럽게도 나는 20대청년시절에 조국의 이름있는 예술단체에서 창작한 혁명가극 《피바다》의 주인공역을 맡아 수행하게 되었다.

머니로 불리우며 조국이 알고 인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보람찬 예술창조활동을 벌린 그 나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으로부터 어머니역을 한 배우가 노래를 잘 부르니 작품의 수준이 속출라간다고, 그는 혁명가극 《피바다》의 품위에 맞는 진짜주인공역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받아안는 크나큰 행운을 지니었다.

조국의 사랑속에 공훈배우, 인민배우의 영예도 지니고 이름난 성악가수들에게도 드물게 차례지는 개인독창회를 여러 차례 진행한 나는 국제성악콩쿨에 참가하여 순위권에 입상하고 음악특별상도 받았다.

예순이 지난 오늘도 나는 청춘의 활력에 넘쳐 주체음악 예술의 후비를 키우는 원수장인 김원경명칭 평양음악 대학에서 후대교육사업에 전념하면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한껏 느끼고있다.

나를 낱아키운 부모도 한갓 철부지소년의 공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나의 희망, 나의 꿈, 그것은 따사로운 조국의 품에 안겨 신비한 전설에서처럼 현실로 활짝 피여났다.

하기에 성악가수로서 성공한 쉽지 않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축하해줄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절세위인들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면 나의 운명은 달리 되었을것이라고.

진정 어머니조국이 있어 나의 복된 삶도 있으니 나는 앞으로도 노래 《한없이 고마운 조국의 품》을 부르고 또 부르며 조국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 것이다.



김원경명칭 평양음악대학 교원 인민배우 조청미

## 력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 오리공장건설 - 전화의 나날에 내각결정으로

광포오리공장은 공화국의 가금업부문에 어머니공장, 굴지의 오리고기생산기지로 불리고있다.

함흥시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광포오리공장은 전쟁의 포화속에서 그러전이 마르던 전쟁이 끝난지 5일만에 창립되었다.

전쟁이 승리한 다음 나라의 도처에 오리공장, 닭공장들을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마음껏 먹이려는것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뜻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불비 쏟아지는 전화의 나날 최고사령부에서 몸소 50여마리의 닭을 키우시면서 가금의 특성과 사양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신것도 바로 이때 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가련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6월에 채택된 내각결정 제295호에는 함경남도에 오리목장을 꾸릴때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식달도 안된 주체42(1953)년 10월은 나라가 제미미속에 파묻혔던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루배를 타고 넓은 광포호수를 건너시어 처음으로 광포오리공장을 찾으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날 과거에는 돈많은 부자들이나 고기를 먹었기때문에 그 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아 고 일없었지만 인민정권하에서는 우리 인민모두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공급해야 하므로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고기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광포오리공장에 바친 심혈과 로고는 끝이 없었다.

사양관리경험이 없었던것으로 하여 공장에 많은 난관이 조성되었을 때에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장을 추켜세울 방향과 방법을 환히 밝혀주시고 몸소 비행기 수백개의 종자오리알까지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 주시었다. 여기서 까난 종자오리가 마침내 수천수만마리로 불어나 《광포종》으로 불리워 온 나라로 퍼지게 되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주체63(1974)년 새로 확장된 광포오리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오리고기가 쏟아져나오는 광경을 만족하게 바라보

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광포오리공장은 《오리의 왕국》이며 함흥시민들의 고기공급기라고 기쁨에 넘치시어 교시하시었다.

《오리의 왕국》!

진정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떠나 광포의 력사, 이 나라 가금업의 력사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오늘 광포오리공장은 오리가 깹 들어찬 여러개의 비육직장들과 공금직장들, 알개우기장, 큰 능리의 가공직장과 령동창고, 덩이큰 배합력 이공장과 화물열차, 자체란 광 등 오리고기생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것을 갖춘 현대적인 공장으로서 전변되었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어

## 재종동로 김명희선생이 제기한 질문

### 공화국에서 채택한 년로자보호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은 200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발효되었다.

공화국년로자보호법은 총 6개의 장 47개 조로 되어 있다.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이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건강하여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년로자들을 혁명의 선배, 사회

와 가정의 옷사람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보장과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함일투사, 전쟁로병, 영예군인 등 공로있는 년로자들을 특별히 우대하며 사회적으로 년로자들을 도와주고 존경하는 미풍을 높이 발휘하도록 할데 대해 밝히고있다. 또한 년로자보호사업에서 다른 나라들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 협조를 강화할데 대해 규정하였다.

제2장 《년로자의 부양》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년로자부양을 사

회생활과 인간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으로, 행동준칙으로 여기고 년로자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정신물질적으로 도와주며 해당 기관들이 년로자들에게 년금 및 보조금, 재산보호 등을 보장할데 대해 밝히고있다.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에서는 보건 의료기관들과 년로자보호기관, 지방정권기관들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년로자들에게 대한 치료간호 및 체육사업, 영양식품보장사업을 잘하며 100살이상 장수

자의 경험을 널리 소개하고 90살이상의 년로자에게는 따로 정한 사회적혜택을 받도록 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에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년로자가 여생을 보람있고 낙천적으로 살아나갈수 있도록 문화정서생활과 환경을 보장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에서는 지방정권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이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여러가

본사기자

#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잡아주신 영광의 자리입니다》

조국을 멀리 떠나 해외에서 살고 있는 동료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절세위인들을 모시는 영광의 시작이다.

여기에 오늘도 재일동포들이 밀려 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는 친어버리의 심정으로 조국을 방문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꼭꼭 만나주시고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여기에 오늘도 재일동포들이 잊지 못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 가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80돌이 되는 주체81(1992)년 4월 15일이었다.

이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던 총련영웅대표단 성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기 위하여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촬영장에 나오셨었다.

총련영웅대표단 성원들의 가슴은 그나름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었다.

어머니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자기들, 총련영웅들이 모두 동부인을 하고 조국을 방문하도록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있었다.

어머니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자기들, 총련영웅들이 모두 동부인을 하고 조국을 방문하도록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뒤줄에 올라섰던 로인들이 모두 앞자리에 내려섰을 때에야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촬영대에 서시었다.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잡아주신 그날의 영광의 자리. 진정한 그것은 총련의 오랜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가장 높이 내세워주

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전하는 사랑의 앞자리, 믿음의 앞자리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지만 지금도 총련일군들은 그날의 감동은 화를 되새기면서 절세위인들의 고매한 품모와 위대성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있다. 총련의 한 일군은 그날의 뜻깊은 사진앞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잡아주신 영광의 자리입니다.》라고 격정 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대표단성원들은 뜨거운 격정을 목이 메어 어깨를 들먹이

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뒤줄에 올라섰던 로인들이 모두 앞자리에 내려졌을 때에야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촬영대에 서시었다.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잡아주신 그날의 영광의 자리. 진정한 그것은 총련의 오랜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가장 높이 내세워주

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전하는 사랑의 앞자리, 믿음의 앞자리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지만 지금도 총련일군들은 그날의 감동은 화를 되새기면서 절세위인들의 고매한 품모와 위대성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있다. 총련의 한 일군은 그날의 뜻깊은 사진앞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잡아주신 영광의 자리입니다.》라고 격정 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대표단성원들은 뜨거운 격정을 목이 메어 어깨를 들먹이

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뒤줄에 올라섰던 로인들이 모두 앞자리에 내려졌을 때에야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촬영대에 서시었다.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잡아주신 그날의 영광의 자리. 진정한 그것은 총련의 오랜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며 가장 높이 내세워주

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전하는 사랑의 앞자리, 믿음의 앞자리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지만 지금도 총련일군들은 그날의 감동은 화를 되새기면서 절세위인들의 고매한 품모와 위대성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있다. 총련의 한 일군은 그날의 뜻깊은 사진앞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몸소 잡아주신 영광의 자리입니다.》라고 격정 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대표단성원들은 뜨거운 격정을 목이 메어 어깨를 들먹이

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뒤줄에 올라섰던 로인들이 모두 앞자리에 내려졌을 때에야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촬영대에 서시었다.

##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 련북애국의 길에서 삶을 빛내인 목사 (2)

1981년 6월 어느날 평양비행장(당시)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팔손을 바라보는 고향의 한 해외동포인사가 내렸다. 자못 감개무량한 심정으로 고국산천을 둘러보는 그는 조국통일총회 회장이며 《한국교회연합회》 고문인 김성락선생이었다.

당시 남조선당국이 해외동포들이 사는 나라들에 의무부 장관까지 파견하여 《북에 가는것은 반국가행위로 된다.》, 《북에 가면 가족, 친척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재미없는 일이 생길줄 알라.》고 위협공갈을 해왔지만 조국을 찾는 동포들의 대렬은 끊을 틈 물줄기나 같았다.

세계를 굽어보는 《평양아름》을 타고 김성락목사가 평양행비행기에 몸을 실은것은 고향을 떠난지 45년만이었다. 오래동안 미국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과정에 공화국에 대한 심히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있던 선생은 속수에 도착한 후 취재기자들에게 자기

의 도착소식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자기에게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으니 조용히 왔

다가 조용히 돌아가고싶다는 것이었다.

고향과 친척들이 있는 공화국을 방문하는 그 시각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공화국에 대한 의혹과 경계심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하루 조국방문의 날이 지나면서 선생의 완고한 립장과 그릇된 편견에서는 도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와 봉화리를 비롯하여 조선혁명박물관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금성드라코프공장과 미림갈문, 김일성종합대학 그리고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등 여러곳을 돌아보는 과정에 선생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인민의 나라로 일떠선 공화국의 현실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그를수록 좋던 왔다다 조 용히 가려고 했었던 당초의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생각할수록 자신의 처사가 민망스러워난 선생은 자기의 조국방문보도와 함께 각지를 참관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소감을 그대로 신문과 통신에 보도해줄것을 부탁하였다.

공화국의 현실은 선생의 완고한 립장과 그릇된 편견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너무도 몰라보게 변천된 고국의 현실을 피부로 체험하면서 평생 의와 진실을 사랑하고 형제와 동족을 사랑할것을 설교해는 선생으로서

는 마음속감동을 누를수 없었다. 특히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세계 수 많은 나라 국가수반들과 사회활동가

들, 각계 인사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호모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공화국의 높은 국제적 권위앞에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느꼈었다.

어느날 선생은 보통강변을 돌아보았는데 이때도 깊은 감동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 몸소 보통강계수공사를 발기하시고 지도하시어 평양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였으며 진후에 현대적인 고층살림집들과 문화시설들이 일떠선 락민공반으로 전변시키신 사실을 알게 된 선생은 감회깊은 눈길로 주변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하였다.

《옛날엔 홍수가 나면 보통강변우에까지 물이 올라와 술한 재난을 빚어내던 토성량이 이처럼 몰라보게 달라졌는것은 친척백을 이룩하신 주석님의 로고가 얼마나 많으셨는것.》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조국의 변모된 현실을 직접 보는 과정에 선생은 마음속에 품었던 의문과 오해를 풀수 있었다.

선생은 공화국의 사회제도야말로 민족을 위한 숭고한 애국의 사상으로 건설한 행복한 제도라는것을 깊이깊이 느끼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선생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만나보고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 조국방문 자기가 바라던 천당, 리상사회를 건설해놓으신 그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시고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이께서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교목사를 만나신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생의 간절한 소원이 풀릴 그 시각은 다가오고 있었다.

# 절세위인들과 총련

## 총련본부위원장회의 제 25기 제 1차회의

### 도 교 에서 진 행

총련본부위원장회의 제25기 제1차회의가 9월 21일과 22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 배진구, 조일원, 송근학, 서충언부의장들, 재정위원회 위원장,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상임위원들, 총련본부위원장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총련중앙 참사, 부국장, 중앙감사위원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추악되었다.

허종만부의장 개회사에 이어 박구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이번 회의의 목적은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선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불멸의 백과전서이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휘황한 실경도, 실천강령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이번 회의의 목적은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강령적서한을 어김없이 관철하기 위한 일대 군중운동을 벌일 데 대하여 토의결정하고 전 조직이 서한관철에 총력기해나서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총련은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전향창조운동》을 전 조직적 대운동으로 벌일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고리는 모든 조직, 전체 일군들과 비전일성자들을 주역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자신들의 결심에 따라 운동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본부위원장이 전향창조에서 사상적종자와 기본주제를 정확히 틀어쥐고 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애국애족창조운동을 일관성있게 벌여 동포들이 사는 방방곡곡에서 화목과 단합, 애국애족의 열기가 끊임없이 고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명심하고 지난해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다지면서 분회제 건포도들을 거어이 달성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본부위원장에 나선 기 본과업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서한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

리 동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총련중시, 동포사랑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것이라고 그는 피력하였다.

그는 총련중앙과 본부위원장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커다란 정치적신임을 심장에 깊이 새기고 거어이 서한관철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해 분투할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총련본부위원장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사상과 의도, 정치적신임을 깊이 새기고 사상관점, 사업적관과 전개, 일 본새부터 전환하여 모든 활동을 서한관철에로 지향, 북중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허종만의장이 회의결속을 하였다.

본사기자 전영민

본사기자



본사기자

##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밟아버리며 (6)

#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패자의 속죄를 또다시 안겨줄 10여일간의 로미오결전

1990년대에 들어와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대결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북핵 위협》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인것이다.

미국의 반공화국핵소동은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화로 사회주의의 보루인 공화국을 거어이 고립압살하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이었다.

당시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계층들을 사주하여 공화국이 제출한 핵물질고량 초기보고서내용과 저들이 축적한 결과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주장을 들고나오게 하였으며 이것을 구실로 두개의 일반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였나섰다. 한편 1993년 1월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공포하였으며 여기에 20여만의 침략부력과 방대한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고 지어 핵무기사용시의 지휘체제까지 발동하면서 군사적위협을 가해나섰다.

미국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령토와 인구수에 있어서나 군사비와 병력수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가진 조미사이의 군사대결은 사실상 공화국과 세계적국주의련합세력사이의 대결구도였다.

세계는 대결이나 타협이나 문제를 이렇게 세우고 공화국이 과연 어느쪽을 선택할것인가에 대해 가슴조이며 주시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미국의 범죄적인 반공화국핵소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시였다.

1993년 3월 8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 《전군,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가 하달되었다.

명령에서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던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피로써 쟁취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침략자들에게 심멸적인 타격을 주고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다스리면서 떨칠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원수들은 우리 공화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엄숙히 경고하였다.

최고사령관명령이 나간데 이어 강경한 군사적대응조치가 취해졌다.

내외호전세력들의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이 실행단계에 들어간데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대규모타격집단들의 기동훈련이 맞받아 진행되었다.

최고사령관명령에 접하여 군대는 물론 온 나라가 순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최고사령관명령을 접하자마자 명도 다 바쳐싸울 불라는 신념을 안고 조선인민군대대를 단련하였다.

최고사령관명령이 하달된 후 10일 남짓한 기간에만도 전국적으로 150만여명의 청년들이 인

민군대입대를, 수많은 제대군인들과 징쟁로병들이 복대를 단련하였다. 그들만이 아니라 남녀로소 전체 인민이 멸적의 기상을 안고 일떠섰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들어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일떠선 조선의 현실을 보면서 적대세력들은 전멸하였다.

바로 이런 때 적들에게 더 무서운 강타가 안겨졌다.

1993년 3월 11일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핵사찰》문제와 관련한 정세와 차후대책이 토의되고 해당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어 12일에는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 핵무기전파방지구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었다.

누구도 예측 못했고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그야말로 청천벽력같은 공세였다.

최고사령관명령이 발표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는 죽가마 풀듯하였다.

형세는 이미 역전되었으며 승리는 확정적이었다.

3월 24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전군,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할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신 소식이 전해졌다.

준전시상태의 조기해제로 적들은 또 한번 패자의 물골을 세상에 드러내보였다.

이렇게 공화국은 10여일간의 절치는 미국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하였다. 미국은 반공화국핵소동을 포함하여 그 어떤 압력이나 위협으로도 공화국을 어쩔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본사기자 박철남

## 일본에서 동포추도모임 진행

간포대지진조선인학살사건 99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일제가 지금으로부터 99년전인 1923년 간포대지진때 조선동포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치명적인 만행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도쿄에 있는 간포대지진조선인회생자추도비 앞에서 총련의 일군들과 동포들, 일본시민들이 참



가한 가운데 동포추도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먼저 희생자들을 추모하여 묵상한데 이어 추도사가 있었다.

추도사에서는 99년전 이역땅에서 일제아수들에게 참혹하게 학살된 조선인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하면서 당시의 조선인학살사건은 국제법상 명백한 집단학살이며 이것은 조선민족에 대한 일본당국의 배타주의사상에 근거를 두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유가족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학살의 역사를 은폐, 외곡하려고 하고있다고 단죄하면서 조선인학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민족적차별과 인권침해를 즉시 중단할것을 요구하였다.

모임에서는 추도사에 이어 공화국의 조선인간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에서 보내온 추도문이 소개되었다.

협회는 추도문에서 일본당국은 오늘까지도 간포대지진조선인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느니, 《역사자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느니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있을 뿐 아니라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불리시키면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고있다고 하면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 해도 일본이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간포대지진조선인학살사건과 같은 참상이 두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대들에게 피의 교훈을 새겨줄것을 다짐하며 희생자들을 추도하여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본사기자 박해방

## 민심과 여론의 비난배격을 받는 《대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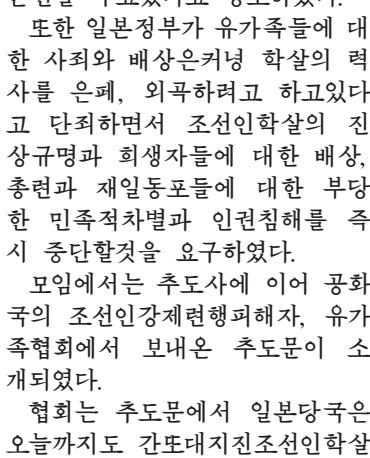
대관계가 북의 핵무기개발을 조려했다. 윤석열정부가 대북선 제타격을 가한한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과 《한국형3축타격체계》 구축에 매달릴수록 북의 대남핵공격위협은 더욱 강화될수밖에 없다.》고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북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고있지만 북은 자력갱생과 지금자적으로 경제를 꾸준히 발전시키고있다. 특히 핵능력고도화를 실현하면서 국가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있는것이 북의 현실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반공화국제대로 《북의 변화를 유도할수 있다는 대북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고있다.

이러한 목소리는 윤석열정부가 당의 어리석은 《대북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난이고 경고이다.

현실은 윤석열정부가 시대착오적이고 동족대결적인 《대북정책》에 매달릴수록 민심과 여

론의 더 큰 비난과 배격에 직면하게 될뿐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박해방

본사기자 박해방

본사기자 박해방

본사기자 박해방

본사기자 박해방

본사기자 박해방

# 남녘민심의 목소리 - 《막말외교, 빈손외교, 외교참사》 윤석열을 퇴출하라!

지금 남조선에서 윤석열역도의 해외행각에 대한 비난이 날로 더욱 고조되고있다.

우선 아무런 외교적성과도 없는 빈털터리행각이었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다.

이번에 역도는 유엔총회연설에서 《자유》이니, 《런데》이니 하면서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관심이 있는듯이 높아졌지만 내외여론의 초점으로 되고있는 조선반도문제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은 역도의 유엔연설이 《알속이 없

는 맹랑연설》, 아무런 구상과 전략도 없는 《맹청연설》이라고 야유 조소하고있다. 또한 남조선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지금문제, 일본과의 관계문제는 공식회담을 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말도 비쳐보지 못하고 초라한 꼴로 되돌아왔다고 하면서 그러고도 《외교성파》에 대해 말할 체면이 있는가도 역적패거리들에게 틀어대고있다.

미국과 일본것들에서 무시와 하대를 받은 굴욕행각이었다는 비난도 터져나오고있다.

남조선야당들과 각계층은 이번엔 윤석열역도가 미국상선과 만나 《인플레이션억제법》문제, 금융안정과 《대북공조》 등 당면한 골치거리들을 해결하겠다고 떠들었지만 공식회담은 고사하고 미국대통령의 광무니만 따라다니다가 어느한 회의뒤끝에 고작 48초밖에 만나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상선은 윤석열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다고 하면서 외교적망신만 당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일본수상에게 기진기진 찾아가서는 격식도 갖추지 못한채 겨우 30분밖에 만나지 못한다다가 섬나라것들에게 시종일관 맹대만 받고 쌍방 《관계개선》에서 아무런 진척도 보지 못한 하나하나한 회담을 하였다고 비난하고있다. 더우기 회담뒤끝에 일본것들이 《락시회담》이 아니고 《비공식회담》이었다. 거들떠보는 듯이 높아졌지만 내외여론의 초점으로 되고있는 조선반도문제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은 역도의 유엔연설이 《알속이 없는 맹랑연설》, 아무런 구상과 전략도 없는 《맹청연설》이라고 야유 조소하고있다. 또한 남조선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지금문제, 일본과의 관계문제는 공식회담을 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말도 비쳐보지 못하고 초라한 꼴로 되돌아왔다고 하면서 그러고도 《외교성파》에 대해 말할 체면이 있는가도 역적패거리들에게 틀어대고있다.

미국과 일본것들에서 무시와 하대를 받은 굴욕행각이었다는 비난도 터져나오고있다.

남조선야당들과 각계층은 이번엔 윤석열역도가 미국상선과 만나 《인플레이션억제법》문제, 금융안정과 《대북공조》 등 당면한 골치거리들을 해결하겠다고 떠들었지만 공식회담은 고사하고 미국대통령의 광무니만 따라다니다가 어느한 회의뒤끝에 고작 48초밖에 만나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상선은 윤석열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다고 하면서 외교적망신만 당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초보적인 외교상식과 관례조차 모르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내세운것이 부끄럽다고 하고있다.

특히 역도가 미국행각간 미국회 것들을 거들며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와 같이 사람들을 아연하게 한 소리를 제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 내외에 급속히 퍼진데 대해 《력대금대행사고》, 국제적인 망신으로 규탄하면서 이제 와서 중색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변명할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책을 인정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역도를 몰아세우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역도의 측근들이 《대통령》이 말한 국회는 미국의 국회가 아니고 남조선 《국회》이고 《바이든》이라고 변명하는것이 아니라 《남리면》이었다고 변명하였지만 그것은 역적패당에 대한 더 큰 비난과 조소, 야유거리가 되었다. 남조선 각계층은 미국대통령의

이름을 《조 날리면》이라고 조소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태우가사의 《휘날리며》를 《휘바이든》으로, 《홍날리는》을 《홍바이든》으로 고쳐 인기를 모으고있다.

남조선언론들도 진보에게는 《바이든》으로, 보수에게는 《남리면》으로 들리고있다. 정치적경해가 청각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논문을 발표해야 할것이라고 야유하고있다. 지어 보수세력내부에서도 《윤석열은 정신차라라》는 말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틀에 나가도 샌다고 윤석열역도가 해외에서 부린 추태는 그 어떤 외교적실수가 아니라 정치인은 고사하고 인간의 초보적인 품격도, 자질도 갖추지 못한 저능아, 인간추물, 불망나니의 괴랄수 없는 수명인것이다. 이런저를 권력의 자리에 그대로 두면 더 큰 재앙과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본사기자 김정혁



## 대세가 어떻게 흐르든지도 모르고

공화국핵무력은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폭제로부터 자기의 령토와 인민, 자산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화국을 우호적으로 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위협으로 되지 않으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공화국의 핵무력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의문시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공화국에 대해 온갖 험담들을 해대고있고 지어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하게 해대고있고 지어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하게 해대고있고 지어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고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보다 강하게 해대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의 《핵우산》을 동족대결의 유일무이한 수단으로, 추악한 명줄을 부지하기 위한 《신의 방패》처럼 여기고있지만 그것은 가스롭고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공화국의 역사적강세, 절대적위협에서 역적패당이 운명의 수호신처럼 떠받들고있는 미국자체가 국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있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공화국의 핵무력은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성숙된 핵역력, 절대적합이다. 강영성

## 썩고 병든 사회제도가 낳은 새로운 반항세력

최근 남조선에서 썩고 병든 사회제도를 반대배격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새로운 무산자들이 《프레카리아트》가 주요 사회정체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고 한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과 《무산자》를 의미하는 영어단어를 합성함으로써 남조선에서는 이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프레카리아트》들은 초보적인 교육도 받고 대학까지 졸업하였지만 일자리를 제대로 얻을수 없는 사람들인것으로 하여 반인민적이며 불평등한 남조선정치체제와 자본주의시장경제에 대한 국도의 불만과 반감을 품고 치지개선과 로동권보장,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남조선에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8%에 해당하는 807만명이 공장에서 정식 로동자로 일하지 못하고있으며 여기에 임시고용로동자, 자유계약로동자, 풀타임로동자까지 포함하면 11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프레카리아트》에 속하는것으로 된다고 한다.

《프레카리아트》들은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저항심이 강해졌으므로 하여 반인민적 남조선정치체제를 위협하기 위해 정치에 나섰다는데 정말 이런 숨미주주는 세상에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레 역도가 것처럼 친미국성을 부렸지만 상진이 해준것은 과연 무엇인가. 친미는 남조선보수역적패당이 대대로 물려오는 전통이다. 윤석열역도 역시 이 전통을 확실히 넘겨받고 친미골종에 국성이다. 얼마전 역도가 미국의 CNN방송과의 회견에서 뱀은 나발이 이를 말했거고있다. 여기서 윤석열역도는 미국의 사회적, 법적인 체계를 받아들이고 접근시켜가는데 가장 도움이 되기때문에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법치와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나 무나도 추락한 현실을 반문시키며 되겠다는 생각에서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떠벌었다고 한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을

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있다.

이들은 최하층민들의 권대조직인 《전국민해방연대》, 《빈민해방전선》 등에 망라되어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과 함께 비참한 생활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얼마전에도 《프레카리아트》들은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과 함께 《로조법》개정과 차별없는 로동권 및 안전한 일자리보장, 사회대변력을 주장하며 반《정부》, 반자본주의투쟁을 벌려왔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

본사기자 류현철

들은 《자본주의가 키워낸 《프레카리아트》가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하고있다.》고 하면서 《프레카리아트》들의 반《정부》투쟁소식을 적극 보도하고있다.

《우리의 삶은 누가 바뀌지 않는다.》, 《사회대전환도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다.》, 《세상의 주인은 우리》라고 하면서 반인민적인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각계층 인민들이 각같이 떨쳐나서고있는것이 오늘의 남조선 현실이다.

가관은 두 패거리가 저마끔 깨면 4차성구들이 악덕과 패를 생리로 하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국민의힘》의 본래를 고스란히 발가놓고 있는것이다. 《양두구육》이 바로 그렇다. 양대가리를 절여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로서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좋은것을 내놓고 뒤에서는 나쁜것을 하는 행위를 띠어낸 성구인데 윤석열역도가 바로 그런 짓거리하는 전형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정》과 《법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야맨 윤석열역도이다. 김영춘

최근 남조선의 《국민의힘》내에서 이진 대표였던 리준석과 최윤석역파사이엔 진흙탕속의 싸움을 현상시키는 치열한 당권쟁탈싸움이 벌어지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이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저들의 행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4차성구들까지 써가며 각축전을 벌리고있는것이다.

《국민의힘》의 대표였다가 윤석열역도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리준석이 《양두구육》, 《3성가노》, 《지록위마》 등을 내뿜은 윤석열역파들은 《양철대소》, 《혹세무민》 따위로 맞받아치는 식이다.

가관은 두 패거리가 저마끔 깨면 4차성구들이 악덕과 패를 생리로 하는 윤석열역적패당과 《국민의힘》의 본래를 고스란히 발가놓고 있는것이다.

《양두구육》이 바로 그렇다. 양대가리를 절여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말로서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좋은것을 내놓고 뒤에서는 나쁜것을 하는 행위를 띠어낸 성구인데 윤석열역도가 바로 그런 짓거리하는 전형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정》과 《법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야맨 윤석열역도이다. 김영춘

하지만 역도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민들을 공정하게 동용하겠다고 하는 칼부림밖에 할줄 모르는 검찰출신측근들을 비롯하여 자기에게 아무 굴종하는 하수인들, 너털내로부터 추천받은 부패한자들을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요직에 끌어들이으로써 집권 초기부터 내외의 강한 비난

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민생 및 복지공약》들을 요란하게 광고하며 그 무슨 《국민승리시대》를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고물가, 고금리, 고회물》의 3고와 《저생산, 저소비, 저투자》의 3저, 그리고 재벌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와 부자들의 세금깎이주기, 《주 52시간근로제유연화》 등으로 민생과 경제를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

리준석패거리들도 천윤석열역파들과 다툼이 없다. 결국 이자들은 《공정》과 《법치》, 《상식》이라는 양대가리를 절여놓고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대중을 생의 막바지에 몰아넣으며 특권층에게는 특혜를 주는 《유전무죄》

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민생 및 복지공약》들을 요란하게 광고하며 그 무슨 《국민승리시대》를 가져오겠다고 했으나 《고물가, 고금리, 고회물》의 3고와 《저생산, 저소비, 저투자》의 3저, 그리고 재벌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와 부자들의 세금깎이주기, 《주 52시간근로제유연화》 등으로 민생과 경제를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

리준석패거리들도 천윤석열역파들과 다툼이 없다. 결국 이자들은 《공정》과 《법치》, 《상식》이라는 양대가리를 절여놓고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대중을 생의 막바지에 몰아넣으며 특권층에게는 특혜를 주는 《유전무죄》

이나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는다는 《양철대소》 또한 권력을 위해 미사리구와 거짓공약들을 늘어놓는가 하면 절대적힘을 지닌 초강대국인 공화국에 대해 온갖 험담들을 해대며 반공화국압살말상을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윤석열역적패당과 리준석과 같은 대결파들에게 꼭 들어맞는 4차성구이다.

결국 보수세력거리들의 누가 누구를 하는 권력 다툼은 윤석열역적패당과 리준석패거리들, 나아가서 보수세력의 더러운 낫작을 스스로 세상에 폭로하는 해괴한 정치판대극이라 해야 할것이다.

더욱 역시러운것은 이자들이 4차성구들을 입에 물리며 마치도 청명결백한것처럼 행세하고있는것이다. 성구와 속담들은 생활을 통해 축적되는 경험과 교훈을 간결하면서도 형상적인 언어형식으로 표현한 말 또는 력사의 깨우침이라 할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격도 갖추지 못한 인간요소들이 신사복을 입고있으니 그야말로 까마귀가 백로목소리를 흉내내는 격이라 해야 할것이다.

명백한것은 천윤석열과 리준석패거리들 아무리 성어, 성구, 속담들을 외워대며 저들의 추악한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해도 악취풍기는 정제는 절대로 숨길수 없다는것이다. 망해가는 집안에 싸움이 잦다고 보수세력거리에게 차례질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 4차성구싸움에 비낀 추악상

동족대결야당과 장명부지를 위해 《물설름없는 한미공조》를 제치며 미국에 간도 쓸개도 다 걸며치는 친미사대대국노들이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얼마나 숨미, 친미에 빠졌는지 얼마전에는 미국상선에게 조선이름까지 피어물리며 야부하였다.

윤석열역도는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엄청난 죄악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는 섬나라쪽야당들에게도 《관계개선》을 구걸하며 과거죄악을 덮어주려고 획책하는 천하역적짓도 서슴지 않고있다.

리준석패거리들 역시 친미친일에서는 천윤석열과들과 한 바리에 실어도 찍이지 않는다. 취임한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도 미일상선들에게 《백년효성》을 확약한 윤석열역적패당과 리준석을 비롯한 정치간담과 리준석을 비롯한 정치간담가 분명하다. 세상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속인다는 《혹세무민》

역시 각계층 단체들과 령대하여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대규모반일초봉집회 등을 연이어 벌리면서 대중적인 반윤석열, 반일투쟁을 전개하고있다.

한편 남조선의 야당들과 령정단체들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하려는 일본의 범죄행위를 묵인하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행위를 《윤석열이 할 말도 못하는 비굴한 태도》라고 비난하면서 일본의 환경과피해에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의 이러한 반일, 반윤석열투쟁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급급하고있는 윤석열정권에 대한 민심의 반발이 거세고있다.》, 《박근혜정부당시 위안부합의체처럼 거센 역풍이 불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 친일매국역적들에 대한 민심의 단죄배격

대처할 대신 오히려 저들이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방안》이라는것을 꺼내들고 이와 관련한 《정부》와 민간단체들간의 협의회를 벌려놓으며 당하게 놀아내는 섬나라것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단호히

그런가 하면 일본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문제를 심의하는 《대법원》에 압력을 가하여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쓸개바친 역적절도 서슴지 않았다.

역적패당의 이러한 망들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과 유가족들, 반일단체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일제강제징용피해당사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봉움을 벌리는 외교부장관이라는자에게 《몇톤의 돈때문에 배상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다.》, 《일본

대신하여 피해자배상을 하겠다는것은 굴욕행위이다.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첫째는 사죄이고 다음은 배상이다. 일본의 사죄와 책임있는 배상을 외면하는 당국과 민간단체들간의 협의회는 필요없다.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했다니 세상에 이런 경악스러운 특등바보가 어데 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죄를 덮어주고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또다시 죽이는 친일골종행위에 대해 당장 사죄해야 한다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얼마전에도 이들은 강제징용피해당사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봉움을 벌리는 외교부장관이라는자에게 《몇톤의 돈때문에 배상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다.》, 《일본

당국과 전범기업의 사죄가 없는 배상은 필요없다.》, 《일본의 죄악을 법적으로 판결하라!》고 거세게 항의하며 쫓아버렸다고 한다. 611개의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들로 조직된 《력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도 지난 12일과 1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역도가 과거죄악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는커녕 《정식회담》을 구걸하며 《관계개선》에 급급하고있다고 규탄하면서 《윤석열은 매일굴욕외교를 중단하라!》, 《골종외교로 얻으려는 정상회담만 대한다!》, 《일본정부에 즉각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라!》고 강하게 들이대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운동단체들



## 현대판 《을사오적》



# 백두산의 절경들 (3)



본사기자 동창현

최근 공화국에서 각종 건강식품들과 고령약제들이 독특한 약리작용 및 건강증진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 여러가지 기능성꿀들

#### ◆도종벌꿀

양봉꿀에 비해 왕벌젖성분을 많이 함유하고있어 위장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산후탈, 기관지염, 천식, 심장병, 당뇨병, 백혈병치료에 특효가 있을뿐 아니라 화상과 욕창치료, 얼굴미용에도 이용된다.

#### ◆산꿀

왕벌젖과 토종벌꿀에 비해 영양가는 그리 높지 못하지만 정상적으로 복용하면 뚜렷한 건강증진효과를 볼수 있으며 위병과 십이지장궤양치료에도 좋다.

#### ◆실구씨꿀

강한 항암작용을 하는것으로 하여 암의 예방 및 치료에 특효가 있다. 호흡기가 약한 사람, 피부병에 잘 걸리는 사람, 혈압이 비정상적인 사람, 빈혈이 자주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효과적이다. 이밖에 가래가 나오는 기침 및 천식,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인 오미자꿀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기능성 꿀들도 있다.



### 영양단졸임(키크기용 1호, 2호)

영양단졸임은 동물성고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여기에 생명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미량원소들을 조화롭게 배합하여 제조한 기능성영양식품이다. 이 식품은 영양보충제로서 어린이들의 키크기와 소화장애, 병후회복, 전자기파피해, 시력저하, 허약, 위궤양, 신경통 등에 대한 치료와 간 및 콩팥기능개선, 면역력증가, 항암작용에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본사기자



### 암탉의 다리는 왜 짧은가

옛날 어린 두 형제가 있었는데 관찰력과 탐구심이 강한 동생이 형에게 물었다. 동생: 《형, 암탉의 다리는 왜 수탉보다 짧나?》 형: 《바보같은거, 그것도 몰라? 다리가 길면 알을 낳을 때 높은데서 떨어져 알이 깨질게 아니야.》

### 천연기념물

## 린산클락새살이터

린산클락새살이터는 클락새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보호구이다.

린산클락새살이터는 멸악산 줄기의 남부기슭을 따라 위치하고있는 린산군 지택리, 안창리, 대촌리, 백천리, 련풍리일대의 일부 지역들을 포함하고있다.

린산클락새살이터에는 오래 묵은 밤나무가 기본수종을 이루고있으며 그외에 소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뽕나무, 산뽕나무 등 키나무들과 떨기나무들이 분포되어있다.

클락새는 딱따구리과에 속하는 사철새로서 나무껍질속에 있는 벌레들을 먹으며 겨울에는 산열매도 먹는다. 클락새는 해발높이 600m

아래 특히 200~300m 되는 지대의 우거진 나무숲에서 많이 산다. 린산클락새살이터는 공화국의

자연보호정책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173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있다.

본사기자



10월은 날씨가 서늘해지고 산과 들은 단풍으로 곱게 물들며 논과 밭에서는 탐스러운 이삭들이 무르익는 풍요로운 시기이다.

10월의 절기로는 한로와 상강이 있다.

한로는 찬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이며 상강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상강이 지나서부터 날씨는 차지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해지며 추위가 오기 시작한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한로를 전후하여 논과 밭에서는 벼가을을 하고 콩, 조, 수수를 비롯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한편 가을걷이로써 불임을 하였으며 상강 때에는 김장배추를 수확하기도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10월절기의 계절특성에 맞게 다양한 음식을 해먹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콩 음식과 추어탕을 들수 있다. 이 시기 우리 민족이 즐겨 만들어 먹어온 콩음식

은 평안도지방의 된비지, 함경도지방의 콩나물김치, 황해도지방의 순두부국밥과 두부탕 등이 있다.

농민들은 가을걷이를 앞둔 때에 미꾸라지를 가지고 추어탕을 푸짐히 끓여먹고 기운을 돋구곤 하였는데 특히 개성지방의 추어탕이 유명하였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옷차림도 계절에 맞게 하였다.

단풍이 드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여러가지 색깔에 찬이슬이나 서리가 내리는 계절특성에 맞는 소매가 긴 형태의 옷과 덧옷도 입었다.

한편 집집마다 한해 겨울을 나이준비로서 온돌을 수리하고 땀감도 장만하였으며 벽과 울타리에 회칠을 하는 등 집안귀을 깨끗이 꾸리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로와 상강시의 계절특성에 맞는 근면하고 다양한 로동생활, 식생활, 옷차림 등을 창조하고 련綿히 이어왔다.

올해의 한로는 10월 8일, 상강은 10월 23일이다.

본사기자

## 10월의 절기와 민속

최무선은 당시 이웃나라에서 사용하고있는 화약의 제조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였으나 그 나라에서는 그 제조법을 극비에 불이요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알아낼수 없었다.

그는 자기 집제산을 다 동원하여 화약제조법을 연구하는 한편 레성강포구에 나가 화약의 주원료인 염초제조법

은 레성강포구로 나가는 일을 하우도 중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수년만에 염초제조법을 아는 리원이 라는 상인을 만났다.

그는 날듯이 기뻐하면서 자기의 집으로 친절히 초청하였다.

《나는 일개 장사치에 불과하고 당신은 보아하니 량반같은신데 생면부지의 나를

플러고 하며 다른 뜻은 없으니 안심하고 우리 집에 있어도 일없습니다.》

리원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 다음 넉넉치 못한 살림이었지만 고급미단과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여 지극히 통솔하게 대접하니 그는 최무선의 호의에 크게 감동되었다.

수일이 지나 최무선은 리원의 호감을 샀고 그가 안심하였다고 생각되었을 때 넌지시 염초제조법을 물었다.

그러자 그는 염초제조법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성의를 다하여 그 제조법을 이야기해주었다.

그후부터 최무선은 침식을 잃다싶이 하면서 염초제조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최무선은 재간있는 집종들을 동원하여 실험 및 제조기구를 갖추어놓고 긴장한 실험의 나날을 보내고 또 보내었다.

1373년 10월, 그는 드디어 국내산원료로 염초를 만들어냈으며 염초를 주원료로 하는 화약제조방법에 성공하였다.

《이제는 되었구나. 드디어 왜구를 격멸할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었구나!》

그는 너무 기뻐서 화약만드는데서 제일 수고한 사람의 잔등을 두드리주면서 울었다.

그는 처자와 리별하고 라향에 와서 불편히 지내는 그대를 동정하여 호의를 배

### 사화

## 화약무기제작과 진포해전 (1)

글 문명우, 그림 채대성

강포한 외적과의 싸움이 그 어느 하나 쉬운것이 있었으랴만 14세기후반기 고려는 가장 강고한 형편에서 침략자와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중에서도 왜구와의 싸움이 제일 큰 골치거리였다.

이 해적의 무리는 방비가 약한 지역에 상륙하여 적으면 수십명씩, 많으면 백, 천, 만으로 떼를 지어 략탈과 살육을 감행하다가 방어진이 출동하면 배에 올라도망치고 우리 군사가 철수하면 물에 올라 역습해오는 것이었다.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의 해안 그 어느곳에 언제 울지도 모르며 상륙하여 략탈을 끝내지만 하면 달아나버리고가는 해적의 무리를 루지에서서만 방어한다는것은 효과가 적음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당시 고려의 수군은 우리의 연해를 지켜내는데 충분한 힘을 가지고있지 못한 형편이었다.

왜구의 침입은 1350년 이후로는 더욱 대규모적인것으로 되었으며 연안뿐 아니라 깊

이 내륙에까지 침입하여 개경에 올라오는 조운선을 모조리 략탈하였다.

왜구의 발길이 미친 모든 고장은 축발이 되고말았으며 배길은 막혀 경창(개경의 식량창고)은 비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왜구를 루지에서서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격멸할 방책을 시급히 강구할것을 요구하였다.

그 방책은 바다로 침략하는 적을 바다에서 쳐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정내의 근시안적인 대신들은 이에 찬동하지 않았다.

《왜적들이 배를 부리는 데 능숙하기때문에 수전으로 싸우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보오.》

《올은 말이오. 전함을 만드는것은 부질없이 재물과 인력을 소모하여 백성들만 괴롭게 할뿐이오.》

이러하여 전함의 건조는 제때에 진척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 화약과 화

약무기를 창제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왜구를 격멸한 사람은 최무선이였다.

그는 원래 경상북도 영천사람으로서 1326년 광흥창(관리들에게 주는 쌀을 보관하는 창고)의 책임자 최동순의 아들로 태어났다.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나라의 피폐와 인민들의 불행을 목격하면서 자란 최무선은 어떻게 하면 왜구를 격멸소탕할것인가 하는 생각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다로 침입하는 왜적을 전멸시키자면 화공을 써서 적선을 몽땅 불살라야 한다. 그러면 배를 잃는 적들은 다시는 침입하지 못할것이고 물에 상륙한 적들은 독안에 든 쥐의 신세가 되고말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최무선은 기뻐서 어쩔줄 몰랐다.

그런데 적의 배를 불살라 버리자면 화약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기술자도, 그 제조법에 관한 아무런 책도 없었다.



을 아는 사람을 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오늘도 또 허탕을 쳤구나. 염초만드는 사람을 못 찾았으니.》

그는 리벽리벽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중얼거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집으로 떠러가는 까닭은 무엇이었나?

리원은 최무선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면서도 이렇게 물었다.

《나는 처자와 리별하고 라향에 와서 불편히 지내는 그대를 동정하여 호의를 배